

국군의 날 변천사

자료 : <국군의 맥>, 1992. 육군본부 조사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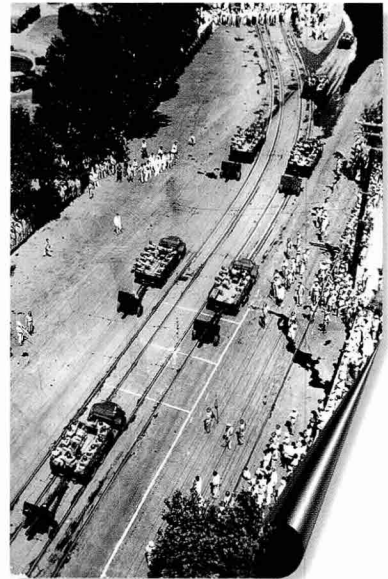
대 한제국 국군이 1907년 8월 1일 일제의 강압에 의해 해산된 이래 제1의 창군이 의병이고, 제2의 창군이 독립군이며, 제3의 창군이 광복군이라면, 제4의 창군은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군의 맥을 이어 온 육·해·공·해병대는 창군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각 군별로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육군은 우리 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가 경기도 태능에서 660명의 병력으로 창설된 1946년 1월 15일을 창설기념일로 삼아 1947년 1월 15일 "조선경비대 창설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창설요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해방병단 결단식"을 거행함으로써 3군 중에서 가장 먼저 해군창설 기념행사를 거행하였고,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육군항공사령부에서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를 가지고 육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공군을 창설할 수 있었으며,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380명의 장병이 모인 가운데 해병대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이처럼 각 군별로 나뉘어 진행되던 창설기념 행사는 물적·시간적 낭비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견되고,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일체감을 조성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다지기 위해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1173호로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그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군의 날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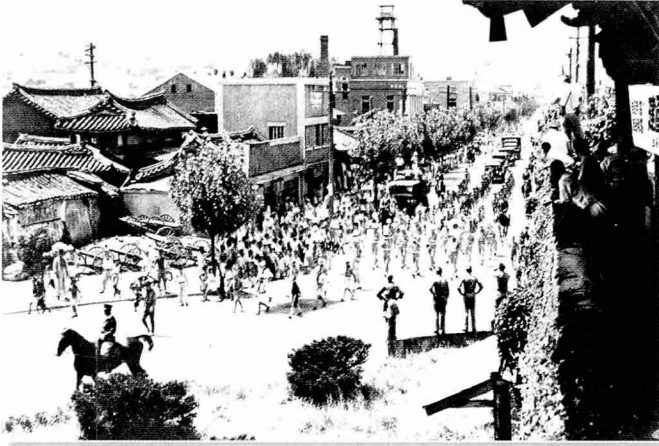
▲ 국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의 시가 행진



◀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경축대회에서의 시가 행진



국군의 날 변천사



◀ 정부수립과 함께 美 군정이 종식되고 정식으로 국군이 편성되었다.



▲ 시가 행진에 참가한 장갑차.



▲ 초창기 공군의 훈련 모습.



▲ 초창기 시가 행진에 참가한 장비들.



▲ 해군은 1946년 1월 일본군으로부터 접수한 군함 10여척으로 최초의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 8·15광복 1주년 기념식에서 시가 행진하는 해군.



▲ 공군은 10월 1일을 공군 창설 기념일로 정해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 국군과 별도로 서울운동장에서 미군의 날 행사를 가진 주한 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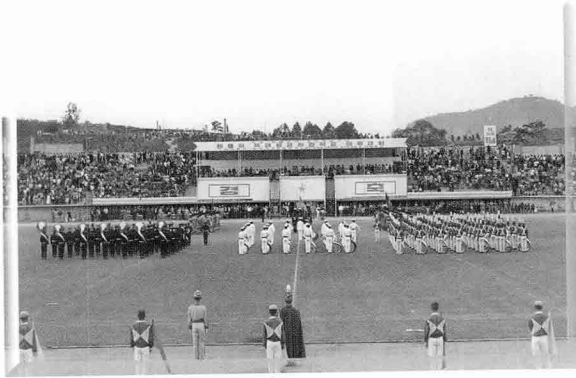
▲ 초창기 국군의 날 시가행진과 환호하는 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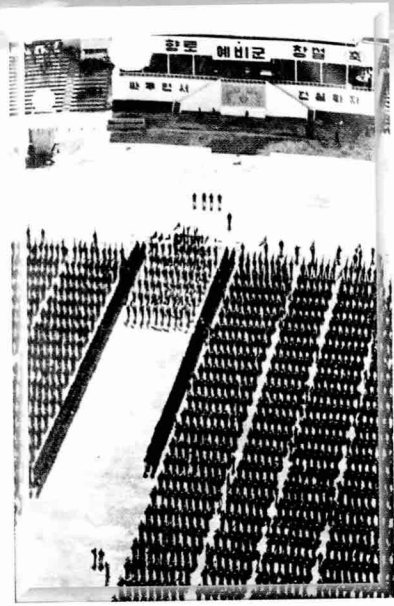
▲ 다채로운 행사로 자리잡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
▼ 한강 백사장에서의 에어쇼 모습.



국군의 날 변천사



▲ 육·해·공 사관학교 체육대회 모습.



▲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 기념식 장면.



현대 장비로 무장한 현재의 국군의 날 행사.





다양한 볼거리로 국민과 함께 해 온 국군의 날 행사

